2015년
4월 2일 목요일

NO.390

상생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일도 척척, 감사도 척척」 공감콘서트 개최

– 국민과 공감하는 그 날을 꿈꾸며 ‘일 잘하는 방법’ 모색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강인서)은 3월 24일 대전 본사에서「일도 척척!! 감사도 척척!!」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형원 감사를 초대손님으로 초청하여 제8회 KR 공감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올해 철도공단은「일 잘하는 공단」을 모토로 “일의 가치는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는” 활동을 전사적으로 전개 중인 가운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일 잘하는 법’,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진취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 등 평소 임직원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신임 감사와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원 감사는 약 28년간의 감사원 재직경험을 바탕으로 “감사(監査)는 양날의 칼인 만큼 법과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불합리한 면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공단이 국민에게 일 잘한다고 인정받으며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ㅁ 지난해 6월 17일 첫 문을 연 공감콘서트는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매달 철도, 인문학, 취미생활 등에 대해 임직원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교감함으로써 직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매회 오프닝을 플룻, 우쿨렐레, 클래식 기타 등 직원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으로 꾸며져 한층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참석한 직원은 “공감콘서트를 통해 일로 맺어진 내 동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며 업무협의 시 서로 배려할 수 있어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서 “더 많은 직원들이 공감콘서트 무대에 서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올해로 시즌2를 맞이하고 있는 공감콘서트는 지역본부로까지 확대하여 본사와 지역본부간의 공감 온도차를 줄여나가며, 강연과 대화형식 이외에 체험형식도 가미하여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KR연구원-철도관련 11개기관, ‘기술개발 양해각서’ 체결

– 공동연구, 기술교류,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기술개발연구 협조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3월 26일 철도관련 11개 유관기관과 “신설되는 철도건설을 활용한 효율적인 연구개발 방향 모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철도기술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MOU체결 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유관기관(6개)	철도학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서울 · 대구 · 대전 · 광주)	관계기관
대학교(5개)	서울과기대, 우송대, 교통대, 충남대, 계명대	협동연구기관

이날 양해각서 내용에는 향후 신설되는 철도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해 ▲ 철도관련 유관기관간 연구개발 수요기술 발굴 및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합동 연구과제 발굴 및 세미나 · 포럼 개최 등을 담고 있으며, KR연구원은 호남고속철도의 시험선로(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정립한 ‘선로구축물 설계기준’을 설명하고,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에 및 ‘철도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시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KR연구원 이동렬 원장은 “연구기관 및 대학간 상호 협력으로 연구개발 환경이 조성되어 보다 효과적인 철도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항철도 서울역과 1,4호선 지하철 연결통로, 3월28일 사용개시!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은 공항철도 서울역과 지하철 1,4호선 서울역을 지하로 연결하는 환승통로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3월 28일(토)부터 사용개시 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철도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2012년 6월 공항철도 서울역과 지하철 1,4호선 연결하는 환승통로 건설을 착공했으며, 개통 전 운영기관과 합동으로 시설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을 완료하고, 장애인 협회 등 실제 이용자들과 함께 ‘이용자 점검’까지 모두 마쳤다.

특히, 유동인구와 철도이용객이 많은 서울역 하부를 안전하게 관통하기 위해, 공사 전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안전한 열차운행과 공사로 인한 철도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비개착 특수공법(PRS : Pipe Roof Structure)을 적용해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완료했다.

본부 관계자는 “환승통로 사용개시로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혼잡한 서울역 대합실을 통과하지 않고,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지하철 환승이 가능해져, 환승시간이 12분 → 5분으로 단축되고, 환승거리도 700m → 300m로 짧아짐에 따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비롯한 철도이용객의 교통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환승거리 : 700m → 300m(400m 단축), 이동시간 12분 → 5분(7분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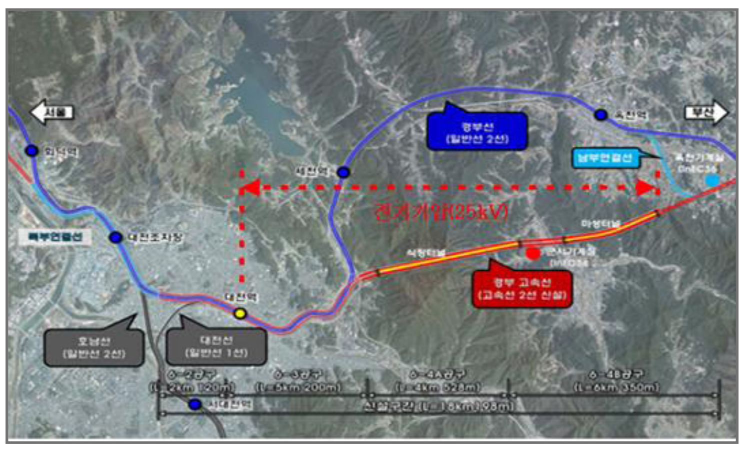
* PRS(Pipe Roof Structure) : 굴착단면에 강관을 압입하여 강관 구조체를 형성한 후 강관 구조체 내부의 토사를 굴착하여 구조물을 완성하는 비개착 공법

서울역 지하 환승통로 조감도(공항철도~지하철 연결)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전차선로에 전기가압 개시

– 3월30일부터 종합시험운행 시작, 올해 6월 개통 계획 –

전기가압 구간 노선도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대전역~마성터널종점, 총길이 14.73km) 전차선로에 3월30일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전기가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차선로는 열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로, 전기가 가압된 후 신설된 철도노선의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거친 후 6월 중 개통할 계획이다. 시설물검증시험은 이달 30일부터 23일간, 영업시운전은 4월 27일부터 15일간 시행된다.

올해 6월 대전 · 대구도심구간이 개통되면 경부고속철도는 전체 노선이 고속철도 전용선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선로용량이 기존 70회에서 240회로 170회가 증대되어 여객수송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도심 개통 후 KTX선로용량 증대 : KTX 70회 → 240회(증 170회)
* 이동시간 : 8분 단축 (서울~부산간 KTX기준)

본부 관계자는 “전차선로에 전기가 공급되면 2만5000볼트의 특고압 전기가 흘러 매우 위험하다.”며, “전차선로 주변에 대형 중장비 등을 이용한 작업 전에는 철도공단 충청본부(042-607-5222)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선로용량 : 열차설정에서 열차를 하루에 몇 대 주행시킬 수 있는가를 말하며, 선구의 열차 설정능력(列車設定能力)을 나타내는 수치척도